

고대사람들은 왜 망자 곁에 다양한 형상의 토기를 넣었을까?

말 형상의 토기,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새를 닮은 토기, 집 형상을 구현한 토기 등...

집승이나 사물을 본뜬 상형 토기와 흙으로 빚은 인형 토우는 옛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시공을 초월해 사람들은 영원불멸에 대한 꿈이 있다. 고대 사람들 또한 사후에도 저편의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양한 토기와 토우에는 그와 같은 간절한 바람이 투영돼 있다. 단순한 장례의례를 넘은 사후 너머의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다.

토기와 토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전을 연다. 오는 7월 28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망자를 보내는 공간에 넣어주었던 토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오연숙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해 인기를 끌었던 특별전의 순회 전시로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매개로 고대 사람들의 장례의례를 비롯해 내세관 등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대 사람들의 장례의례는 죽음을 단절이 아닌, 현재와 사후가 연계되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계세사상으로서 옛 사람들의 사후관, 종교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신라·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상형토기를 비롯하여 경주 황남동유적 등에서

국립나주박물관 7월 28일까지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특별전
동물·집·사람·수레바퀴 등 형상...신라·가야지역 출토 토기 등도 전시



왼쪽부터 경주 노동동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항아리(국보), 해남 만의총에서 발굴된 동물모양 토기, 경주 황남동유적에서 나온 토우장식토기 뚜껑.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의 토기나 새모양 토기는 망자를 '하늘로 이어주고 안내'해 주는 동행자의 역할에 초점을 뒀을 것이다. 말모양 토기와 수레바퀴모양 토기, 저편의 세상에서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집 형상의 토기 등은 시대를 다를지언정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추구의 열망을 보여준다.

2부 주제는 '해어집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이다.

토우장식 토기 또한 무덤에 놓여진 제의 용도로 제작됐다. 특히 전시에서는 1926년 일제강점기 경주 황남동유적에서 발굴된 토우장식 토기가 다수 공개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15cm 내외의 토기 뚜껑에 담긴 장례 장면이 그것이다. 절하는 사람, 절하는 사람을 비롯해 가무를 펼치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남과 여를 묘사한 성적인 장면도 있다. 수습 중의 동물의 형상 외에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열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 등은 당대 사람들이 죽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또한 경주 노동동유적에서 수습된 '토우장식 항아리' (국보)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뺀 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람이 장식돼 있는 모습은 사투 이색적이다.

박물관은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 속 동물 이야기',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도 준비했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순회 전시는 큰 틀에서 보면 나주박물관 특성과 주제인 '영산강 유역 고대 고분 문화'와 연결돼 있다"며 "영산강 유역과 경주권 유적의 고대인들의 상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발굴된 토우장식 토기 등 240여 점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토우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 정교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움직임이나 형상이 고정화돼 있지 않고 자유스러우며 역동적이다. 고대 사람들의 삶의 유희와 예술적 감성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망자들이 사후세계에 가서도 현재의 삶과 같은 즐거움과 복을 누리기를, 또는 현재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다면

내세에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소박한 기원을 읽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토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했다. 개개의 토우들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미디어를 접목한 것. 아울러 디지털 점자 정보 검색과 촉각 체험자료를 통해 생동감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전시는 모두 2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부는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를 초점화한다. 일반적으로 상형토기는 제의용 그릇으로 쓰였다. 언급한 대로 형상은 다양했는데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 안에 술 등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각각색의 상형토기는 고대 사람들의 예술적 심미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상서로운 동물 모양

흔한 식물과 흔한 기물의 콜라보레이션

송일근·정연두·윤용신·정희창 참여
27일~6월 19일 동구 미로센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모르는 존재가 식물이다. 식물은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생명체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생육도 천차만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여러 쓰임이 있는 기구를 일컫어 기물이라 한다. 살림살이에 쓰이는 그릇 등을 만드는 것을 기물공예라고 한다.

식물과 기물은 인간의 삶과 밀접할 뿐 아니라 식물과 기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식물과 기물의 관계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구 미로센터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1층 '미로1' 공간에서 '식물을 위한 기물(器物)'전을 연다.

한창운 미로센터장은 "흔한 식물과 흔한 기물이 만나 이루는 콜라보레이션은 관람객에게 생명성에 근거한 실질적 관계를 사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5월이라는 계절에 반려 문화를 모티브로 진행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시 구성은 모두 3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담양에서 농사지며 예술활동을 펼치는 송일근(도자)·정연두(설치·섬유)의 '미나리의 합창'은 마당 텃밭을 옮겨 놓은 듯한 작품이다. 세 사람이 가운데 미나리를 두고 바구니로 보이는 기물을 들고 있는 모습은 이색적이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해남에서 풀을 모티브로 활동하는 윤용신의 '그



윤용신 작 '자연과 기물의 순환'

린 테이블'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자연과 기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곡성 창아트 공방의 정희창(응기작가)의 소외된 식물과 사물을 위한 작품 '어린 나무들'도 생명과 관계의 새로운 관점을 사유하게 한다.

한편 정연두 바느질 작가는 "지금 농촌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물과 햇빛, 바람 등 자연이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 자라나는 식물들이 천지"라며 "전시장에 들어온 자연을 매개로 치유와 공생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국보 지정

송광사는 고려 때 보조 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확립한 근본도량이다. 이후 15명의 국사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올 만큼 승맥의 뿌리가 깊다. 송광사를 일컫어 승보사찰(僧寶寺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송광사에는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가 있다. 1725년(조선 영조 1) 화승 의겸 등이 참여한 불화로, 1폭의 영산회상도와 8폭의 팔상도로 이루어져 있다.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가 국보로 지정돼 화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팔상도는 석가모니 생애 가운데 중요한 8개 주제를 표현한 것으로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기법, 도상, 주제 등은 국가마다 특징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했는데, 송광사 팔상도는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번 국보 지정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회승 의겸을 위시한 화승들은 제각기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며 팔상의 인물들을 묘사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시간적 구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전각이나 소나무 등을 활용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예술성이 돋보인다.

1개의 영산회상도 외 8개 팔상도는 다음과 같



'송광사 영산회상도'

다. '도솔래의상', '바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향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등이다.

한편 문화유산청 관계자는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된다"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승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써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누벨바그 영화 대모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

6월 12일까지 광주극장

'누벨바그의 어머니'라 불리는 벨기에 출신 프랑스 영화감독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이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누벨바그 영화의 대모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을 오는 6월 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진행한다.

아녜스 바르다는 프랑스의 영화적 새로운 흐름 '누벨바그'를 이끈 기수 중 유일한 여성 감독이다. 91년 생애 동안 총 50여 편이 넘는 장·단편을 연출했으며 영화의 형식을 자유롭게 오가며 신선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총 8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회고전에서는 초기작 '5시부터 7시까지'부터 15년에 걸친 두 여성의 우정, 여성운동사를 그린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등을 상영한다.

제42회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방

랑자', 시대의 문화 아이콘 제인 버킨을 그린 '아녜스 V에 의한 제인 B'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감독 자크 드미의 삶을 그린 '낭트의 자코', 폐물 건들을 수집해 생존하는 이들을 통해 사회 비판적 시선을 담지하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 아녜스 본인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서서 영화와 삶에 대한 자전적 목소리를 들려주는 '아녜스 바르다의 해변' 등도 볼 수 있다. 아녜스의 영화 세계를 주제로 조혜영 영화평론가의 강연도 6월 2일(오후 3시) 펼쳐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28일에는 '화요일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영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를 상영한 뒤, 오후 7시 40분부터 영화간판장이 박태규와 함께 하는 토크쇼도 열린다. 29일 오후 7시에는 '바르다가 상영한 얼굴들' 상영 후 오후 8시 40분 '광주극장을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게스트 토크가 진행된다.



'아녜스 V 제인 B' 스틸컷. (광주극장 제공)

광주극장 관계자는 "기술, 촬영기법 등에서 혁신을 추구했던 누벨바그 영화의 진수를 마주하길 바란다"며 "이 밖에도 상영작들을 그린 스페셜 포스터 제공, 그림티켓 증정 이벤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왜 바흐인가?'

피아니스트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II, 6월7일 광주예술의전당

왜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게 됐을까. 스튜디오 공작이 '피아니스트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II - 왜 바흐인가?'를 오는 6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태생에 대해 인문학적 토크와 작품 연주를 곁들이는 '인문학 리사이틀'을 표방한다. 지난 2019년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6년째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다.

바흐의 '푸가의 기법', 헐리의 '조곡' 등을 감상하며 인문학 세미나 방식의 토크쇼를 감상할 수 있다.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퉁기누스의 송고론과 역사 가운데 남은 음악', '살아남은 음악과 송고', '살려 남긴 음악과 송고'를 비롯해 '근대 유럽의 송고담론과 바흐', '음악적 이상주의와 정전의 형성' 등이 그것.

큰 주제로 '왜 하필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인가?'와 '오래된 음악을 연주하는 관습은 어떻게 만들어



피아니스트 허효정. (스튜디오 공작 제공)

졌는가'라는 토크쇼도 만날 수 있다.

서울대 음대 기악과와 미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서양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허효정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연주자 디플로마, 위스콘신 주립대 합창지휘 석사·피아노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 음악교육과에서 조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